****

**선교 활동 보고**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기: 이민 가정 자녀의 성장을 돕는 일**

새로운 이민자 및 난민, 망명 신청자들의 가슴 아픈 어려움이 저녁 뉴스에서 소개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리씨와 같은 사람들을 실제 삶에서 연결하는 것은 훨씬 더 대단한 일입니다.

온두라스 청소년 리씨는 한참 민감한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망명지를 찾아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 교육 시스템과 영어에 낯선 리씨는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comer Academy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등교한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COVID-19의 확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 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치먼트 장로교회에 출석하며 최근 은퇴한 미국 장로교 선교 담당자인 데비 브락스마 목사는 “COVID-19는 새로운 이민자와 같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비치몬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온두라스 출신 엘머 자발라 목사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민온 사람들은 아직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데다 근무 일과도 불규칙하여,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을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락스마 목사는 비치몬트 교회가 COVID에 의해 악화된 교육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역 조직인 Evolve502가 팬데믹 중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모여 자원 봉사 교육자와 카운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부방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브락스마 목사가 이 조직에 연락을 했을 때, 그들은 " 당신이 직접 공부방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말했습니다.

비치몬트 교회 성도들, 제퍼슨 카운티 공립학교와 Evolve502의 도움으로 비치몬트 장로교회는 2021년 1월 공부방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현재 리씨와 같은 21명의 이민자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비치몬트 교회의 목사인 마리사 갤반-발레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젊은 장로교인으로서, 저는 교회가 어린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비치몬트 교회의 우리에게는 단지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와 지역 사회 안에서 어린이가 존중받으며 자라나도록 성령강림절 특별헌금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성령강림절 특별 헌금](https://specialofferings.pcusa.org/offering/pentecost/)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특별헌금을 통한 우리의 지원은 "[어린이 교육은 곧 세상의 변화](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compassion-peace-justice/child/)"라는 전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나아가 청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과 [장로교 청소년 트라이에니엄](https://presbyterianyouthtriennium.org/) 프로그램 또한 장려하고, 발전시키며 지원합니다.

성령강림절 특별헌금의 40 퍼센트는 각 지역 공동체의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을 위해 개별 교회에서 보유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특별헌금의 우리 몫을 (여러분 교회의 사역에 관해 이야기를 여기에 써서 나누십시오)에 써 왔습니다

성령강림절 특별헌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하면 큰 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과 은사를 통해 저희에게 희망을 주소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당신의 계획과 그들의 잠재력이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저희와 더불어 그들에게 만들어 주소서.* **아멘**.